

량치차오 詩文 中の 安重根 형상 연구

- 조선 황실 및 지도층 인물과의 대비를 포함하여 -

최형욱*

〈차 례〉

1. 서론
2. 량치차오의 사상·시문과 조선
3. 안중근 형상화의 양상 및 타인과의 대비
4. 결론

[국문초록]

안중근 의거는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 역사와 한중 교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음은 물론 양국 문예의 제재 중 하나이기도 했다. 중국에서 안중근을 제재로 시가를 짓고 문장을 통해 논의하기 시작한 선도자는 량치차오였다.

한말 개화파 지식인들의 중요한 롤 모델이었던 량치차오는, 한편으론 서구 및 일본 국가주의·제국주의의 속성을 꿰뚫어보고 그 폭압에 분노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것을 동경하기도 하고 여전히 역시 제국주의인 중화주의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했다. 때문에 중국인 량치차오에게 있어서 조선은 상실되어가는 자신의 일부이기도 했고, 동시에 서구 및 일본과의 대비 속에서 중국 자신을 비취볼 수 있는 타자이기도 했다. 나아가 중국의 운명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고민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 특별한 타자의 멸망을 바라보며 동정·서운함·소소·염려 등 복잡한 감정과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한 감정과 인식은 1904년부터 1911년까지 일본이 조선에 대한 감점을 본격화하고 완성한 시기에 지은 두 편의 장편 시가와 여러 편의 문장 가운데 담겨있다. 작품들 가운데서는 먼저 조선의 망국 문제에 대해 폭넓게 詩情을 펼치거나 논의를 풀어나가는 가운데 ‘안중근’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도 했고, 반대로 처음부터 ‘안중근’을 제재 삼아 시가를 읊는 가운데 조선의 망국 문제로 주제를 확대시켜 나가기도 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계몽을 취지로 했다.

량치차오가 ‘안중근’을 제재로 지은 시가는 장편 史詩로 일컬을만한 <秋風斷藤曲>과 <朝

* 한양대 중앙중문학과 교수

鮮哀詞> 24수 중의 몇 수이다. 그 창작 동기 및 내용은 첫째, 안중근 의거에 감동을 느껴 국기를 위한 영웅적 행위와 의협으로서의 인물됨을 찬양하는 것이고, 둘째, 나아가 그 이미지를 국민성개조를 비롯한 중국의 계몽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朝鮮亡國史略>·<日本併呑朝鮮記>·<朝鮮滅亡之原因> 등 문장들 중에서도 亡國史學 또는 亡國政論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주제의식 속에서 조선의 멸망에 대해 배경·원인·과정·교훈 등을 논의하며 자주 안중근을 제기하고 묘사했다. 그 궁극적 목적은 역시 중국을 위한 각성과 계몽이었다.

량치차오에게 있어서 안중근은 국가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표준 및 리더십인 중국적 士道·武士道の 표상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인물이었기 때문에 시문의 제재로 활용되었다. 나아가 그가 국민성개조론 중 가장 이상적인 국민성 중 하나로 강조한 尙武精神을 선양하기에 매우 적합한 인물이기도 했다. 아울러 량치차오는 지도층의 도덕적 덕목과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당시 조선의 황실 및 지배계층 인사들을 안중근과 완전히 상반되는 부정적인 형상으로 묘사함으로써 정면교사와 반면교사의 극명한 대비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주제어] 량치차오,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형상화, 영웅, 의협

1. 서론

안중근 의사(1879~1910)가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제의 수뇌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의거가 일어난 지도 어느덧 111년이 되었다. 그동안 관련국인 한중일 삼국간의 관계나 상황도 엄청난 변화와 부침을 겪었다. 그래도 함께 일제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한중 양국 국민들이 안중근과 그 의거를 대하는 시각과 감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존경과 추모의 마음도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그 달 24일, 하얼빈 역에 도착했을 때, 조선인 안중근이 그를 저격했다. 세 발. 마침내 죽었다. 중근이라는 자는 예수교도이며, 일찍이 미국에서 공부한 자이다. 체포되어 일본인들이 심문했으나, 꺼릴 바 없었으며, 訟事가 성립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 물으니, 자신은 광복군의 한 將官으로서, 義는 도망칠 수 없다고 답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으니, 나는 이미 나의 원수를 섬멸하여 나의 일이 끝났으니, 한번 죽는 것 외에 다른 추구함이 없다고 답했다. 일본인들도 그에게 존경심이 생겼다.¹⁾

1) “月之二十四日，抵哈爾濱驛，韓人安重根狙擊之。三，遂卒。重根者，耶穌教徒，曾學於美國者也。既就逮，日人鞠之，不諱，獄成，得死刑。問曷爲不逃，曰吾爲光復軍一將官，義不可逃。問何欲，曰吾已殲吾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의 〈日本併呑朝鮮記〉 중 한 대목이다. 그는 의거 직후부터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문장과 시가들을 통해 안중근에 대해 기술하거나 문학적 형상화를 시도했다.²⁾ 그중 하나인 위 문장을 읽다가 느꼈던 강렬한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가 않는다.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기도 하다. 살펴보니, 안중근 의거는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 역사와 한중 교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음은 물론 양국 문예의 제재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안중근을 제재로 시가를 짓고 문장 가운데 논의하기 시작한 선도자³⁾가 바로 량치차오였다.

량치차오는 廣東 新會人으로, 字 卓如, 號 任公, 筆名 飲冰室主人 등이다. 격동의 중국 근대 전환기를 살면서 시대에 조용하여 중국을 이끌어간 維新派 계몽주의 지도자로서, 정치·언론·학술 및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적 변화를 주도했다. 아울러 그의 사상과 문학은 중국보다 더 절박한 위기에 처해져 뒤늦게 변혁을 모색하던 조선의 이른바 개화·계몽·애국 성향의 지식인들에게도 수용되어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량치차오 또한 1898년 변법유신 실패 후 일본에 망명해 있으면서도 조선 관련 정세 변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매우 깊고 상세한 인식을 표출했다. 물론 중국의 지도자로서 자국을 위한 계몽을 추구하는 목적의식이 강렬했고, 中華主義 사유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경쟁관계를 주시하는 타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시각과는 차이는 점들이 많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위와 같이 량치차오와 조선 지식인들이 특별한 상호 인식 및 입장을 가졌던 가운데, 량치차오가 시문을 통해 안중근에 대해 논의하고 문학적 형상화를 전개한 내용과 의의에도 특별한 점들이 보인다. 이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웃한 타인의 색다른 시선을 통해 어려웠던 시기의 '우리'를 이해해보

仇, 吾事畢, 一死外無他求也。日人爲之起敬。”(梁啓超, 『飲冰室專集』之二十一, 14면) 량치차오의 시문은 『飲冰室專集』과 『飲冰室文集』이 합쳐진 『飲冰室合集』(北京: 北京中華書局, 1936年影印本)에서 인용함.

2) 본론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1909년 의거 직후에 이미 안중근 의거를 제재로 〈秋風斷藤曲〉이라는 장편시를 지었고, 이후 법정 재판도 직접 방청한 바 있다.

3) 의거 이후 량치차오가 지은 관련 시문 중에는 발표 시점을 확정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비슷한 시기 다른 중국인들의 작품도 있었지만, 그가 기울인 관심이나 영향력까지 고려하면 선도자로 일컫기에 손색이 없다.

고, 그것을 통해 다시 ‘이웃’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량치차오의 시문을 텍스트로 삼는 것은 무엇보다 조선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근대 전환기 중국의 대표적 지식인의 인식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 이후 중국에서 이루어진 안중근 관련 저작 및 문학 창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중요하다. 더불어 그의 시문 가운데는 당시 조선의 다른 인물 묘사들도 다수 드러나 있어 안중근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는 특징도 있다.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안중근이 비록 외국인이지만 자신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사유와 정서 그리고 기억이 있는 역사 인물이고, 문예의 중요한 제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또 앞으로도 시대상황에 따라 소환되어 정치·외교적으로 재평가되고 새로운 문예창작으로 승화될 수 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주시해야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연구도 필요하다. 우선 관련 자료 발굴·정리와 연구는 안중근을 기리는 의미 외에도 양국, 나아가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상호인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량치차오의 사상·시문과 조선

량치차오가 ‘안중근’을 비롯한 조선 관련 시문을 지은 시기는 주로 1904년부터 신해혁명(1911) 무렵까지이다. 일제의 조선 침략이 본격화된 을사늑약(1905)부터 안중근 의거(1909)를 거쳐 조선 멸망(1910)이 확정된 시기까지와 비교해보면 앞뒤로 1년씩 더해서 포괄한다. 정치 지도자이자 사학자의 입장에서, 급격히 멸망으로 치닫하는 조선의 대내외 상황과 동북아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전 등 국제정세에 대해 관심이 컸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朝鮮亡國史略〉 등 이른바 ‘망국사학’ 경향의 문장이나 〈朝鮮滅亡之原因〉 등 ‘망국정론’ 경향의 문장들이 많다. 또한 詩에서도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됨은 물론이고 스스로도 조선처럼 멸망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동시에 조선에 대한 동정·서운함·우려·조소 및 아쉬움 등 복잡 미묘한 심정을 표현했다.

이 시기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량치차오의 사상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사상이 두드러진다. 정치적으로 입헌군주제를 표방했지만 清朝의 재건이 아니

라 洋務派 선배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일본 메이지유신과 같은 전면적인 변혁을 모색했다. 물론 그는 그 변혁의 정치적 실천인 變法維新(1898)이 실패하여 일본에 망명해 있었지만, 체류기간 동안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 문화에 경도되어 중국 개혁의 본보기로 삼았다. 반대로 조선은 매우 적절한 반면교사로 여겼다. 둘째는 개혁의 근간이 되는 계몽사상·교육사상으로, 이는 ‘新民思想’으로 집약된다. 망명 이전에는 科擧制 폐지 및 여성교육(女學)·이동교육(幼學)을 비롯한 학교 교육을 위주로 하는 인재양성을 강조했다. 망명 이후에는 주로 열악한 국민성을 분석·개조하고 국민의 정신문화 수준을 提高하는 이른바 ‘소양교육’을 통해 국민을 계몽하고 국가를 근대화시키고자 했다. 셋째 국민국가주의 사상이다. 진화론의 세례를 통해 우승 열패의 세계 현실과 ‘天下觀/華夷論’ 구조의 중화주의의 비현실성을 자각했다. 나아가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침략을 겪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도 국민과 국가의 개념을 수립하고 국민국가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조선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는 종주권을 언급하는 등 뿌리 깊은 중화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기도 했다. 결국 중화주의·국민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가운데 제국주의·군국주의에 대해 비판과 선망의 모순된 시각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문학가이기도 했던 량치차오는, 자신의 사상과 인식을 국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매체로써 문학을 적극 활용했다. 망명 이후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고 더구나 대중계몽의 중요성을 더 절실히 인식하게 되면서 그 수단으로서 문학을 매우 중시했다. ‘詩界革命’·‘小說界革命’·‘戲劇界革命’ 및 ‘新文體改革’ 등 문학개혁운동을 전개하여 중국의 근현대문학 및 글쓰기에 계몽주의적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 그 핵심이다.

량치차오의 문학개혁운동 중에서는 물론 소설개혁의 성과와 의의가 특히 두드러져 보인다. 과거 소설이 정통문학의 범주에 들지 못했던 것에 비해 그 문학적 지위가 크게 상승되었고, 특히 대중에 대한 소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점을 중시하여 이론과 번역·창작에 고루 힘썼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안중근 및 조선 관련 문제를 직접 제재로 삼아 지은 소설 작품은 보이지 않는다.

량치차오는 주로 詩와 文을 통해 안중근 및 조선 관련 문제를 다루었다. 그의 시론과 시 창작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그의 시에 관한 전반적 논의는 ‘詩界革命’으로 집대성되는데, 자신이 주관한 『新民叢報』에 연재한 〈飲冰室詩話〉⁴⁾를 통해 전개한

매우 계몽주의적이고 功利主義的인 詩歌의 개혁 및 대중화운동이었다. 그 핵심은 시의 내용 및 정신을 ‘新意境’ 즉 근대문명·시대정신 등으로 혁신하고, 내용과 정신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효용성·계몽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新語句’ 즉 새로운 명사들을 적극 사용하되, 다만 중국 시가 지니는 ‘舊風格’ 즉 고유의 시적 미학은 계승해나가자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한 시의 내용 및 정신은 사회진화론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민국가의 근대화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긴 서구 근대문명, 애국정신, 계몽사상, 상무정신, 중국정세, 국제정세 등등이었고, 그 경향은 기본적으로 애국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이었다. 따라서 안중근 의거를 비롯한 조선 관련 정세를 시의 내용으로 삼는 것은 자신의 詩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록 량치차오를 전문적인 시인으로 부르기는 어렵지만,⁵⁾ 그래도 자신의 시계혁명 논의에 부합하는 작품을 꾸준히 창작하여 詞 60 여 수 포함 근 500 수의 시가를 전한다. 그는 특히 호머나 셰익스피어와 같은 서구 문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世上的 運行’이나 현실 문제를 다루는 데는 장편의 史詩가 효과적인데, 중국에는 그러한 전통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⁶⁾ 형식면에서 장편시의 중시는 앞서 언급한 현실주의적 경향의 ‘新意境’ 즉 時局에 관계되고 ‘世上的 運行’에 영향을 주는 내용과 밀접하게 연계되며, 시가 형식 개혁의 일환으로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량치차오의 시가 중에서 조선과 관련된 작품이 두 편 있으며, 모두 장편으로 역시 시계혁명론에 부합한다. 한 편은 1909년 10월 26일⁷⁾ 안중근 의거 직후 주로 이를 제재로 지은 〈秋風斷藤曲〉이라는 7언 96구의 장편시이다. 다른 한 편은 조선이 일제에 의해 멸망한 1910년 가을 발표한 〈朝鮮哀詞五律二十四首〉(이하 〈朝鮮哀詞〉)로, 역시 장편이며 안중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조선 멸망에 대한 중국 지식인의 복잡한 감정과 미묘한 인식을 노래했다. 이 작품들은 스승인 강유웨이

4) 『新民叢報』 제 4호(1902.2.15)부터 제 95호(1907.10.1)까지 연재되었던 총 204則의 시화이다. 『飲冰室文集』에 수록되었고 이후 단행본으로도 출판되었다.

5) “내가 비록 시를 잘 짓지는 못하지만 시를 논하기는 좋아했다. (余雖不能詩，然嘗好論詩)”라고 언급한 바 있다. 『夏威夷遊記』[原題：汗漫錄]，1899.12.17.~1900.1.10까지의 日記 중 1899.12.25.日分，『飲冰室專集』之二十二，189년)

6) 『飲冰室詩話』第8則에서 다행히 유신과 동료인 黃遵憲이 이 분야를 새로이 개척하여 典範이 되었다고 극찬했다. 특히 황의 장편 史詩인 〈錫蘭島臥佛〉에 대해 서구 대문호들의 작품 못지않다고 평가했다. 『飲冰室專集』之四十五上，3~7면 참고)

7) 앞의 『日本併吞朝鮮記』 인용문에서 24일이라고 한 것은 량치차오의 착오이다. 이 날은 음력으로도 24일이 아닌 (9월) 13일이었다.

이(康有爲)나 동료 디바오셴(狄葆賢) 등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 있다.¹⁰⁾

다음으로 량치차오의 문장들 역시 문언문의 문체와 내용에 일대 개혁을 가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이른바 新文體 散文으로서, 선구적이고 매력적인 여러 특징들로 인해 일세를 풍미하며 근현대 중국의 문학 및 글쓰기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한 가운데 언급했듯이 량치차오가 조선¹¹⁾에 관해 논의한 문장들은 일제가 조선에 대해 강점을 완성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政論文 종류로 <日本之朝鮮>(1905.1, 『新民叢報』), <嗚呼韓國嗚呼韓皇嗚呼韓民>(1907.10, 『政論』), <日韓合併問題>(1910.7, 『國風報』), <朝鮮滅亡之原因>(1910.9, 『國風報』), <朝鮮貴族之將來>(1911.3, 『國風報』) 등이 있고, 조선 문인 金澤榮(1850-1927)의 부탁으로 써준 <麗韓十家文抄序>(1915.2)에서도 조선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더 중요한 것들로 <朝鮮亡國史略>(1904.9, 『新民叢報』), <過去一年間世界大事記第六朝鮮之亡國>(1906.2, 『新民叢報』), <日本併吞朝鮮記>(1910.9, 『國風報』), <附: 朝鮮對於我國關係之變遷>, 1911) 등 조선의 멸망에 대한 역사적 기술을 한 문장들도 있다. 역시 시기뿐만 아니라 문장 제목으로부터, 량치차오의 조선에 대한 관심이 이른바 ‘亡國’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편중에서 앞의 두 편은 발표 시점이 각각 1904년·1906년이었던 관계로 안중근 의거까지 다룰 수 없었다. 1910년 9월에 발표한 <日本併吞朝鮮記>에서는 조선의 멸망에 대해 총체적으로 기술하고, 중국의 대한정책 및 한중관계의 변화 문제도 폭넓게 다루는 가운데 안중근을 비롯한 다양한 인물묘사도 보인다. 가장 중요한 문장으로 여겨진다.

한편 량치차오는 史學者로서도 중국의 근대적 新史學을 정립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중요한 史論들¹²⁾을 발표하며 이른바 ‘史界革命’을 주도했다. 사론 저작들에서 역사는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기록하고 나아가 그 진화를 因果關係로 설명함으로써 當代 일반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하며, 이로써 민중계몽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³⁾ 이러한 계몽주의적 사학 경향은 특히 중국의 위기가 날로

10) 예를 들어 강유웨이(汪有爲)는 <朝鮮哀詞>에 대해 위로는 詩經의 小雅를 계승하고 杜甫에 비해서도 부끄럽지 않다고 극찬했다. (汪松濤, 『梁啓超詩詞全注』(廣東高等教育出版社, 1998), 247면 참고)

11) 량치차오는 대체로 ‘조선’과 ‘한국’ 두 명칭을 구분 없이 혼용했다. 이에 관해 <日本併吞朝鮮記>의 ‘記例’에서, “본문에서 조선으로 칭하기도 하고 한국으로 칭하기도 하는데, 문장의 편의에 따른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飲冰室專集』之二十一, 1면)

12) <中國史序論>(1901)·<新史學>(1902)·<中國歷史研究法>(1922)·<中國歷史研究法補編>(1927) 등.

13) <中國歷史研究法>, 『飲冰室專集』之七十三, 1면 참고.

더해가는 가운데 자신의 亡國史學의 방향성을 강화시켰다.¹⁴⁾ 물론 중국인들에게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고, 이는 위에 열거한 조선 관련 문장들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량치차오의 망국 사학·정론 및 시가에 있어서 중요한 제재 중 하나가 ‘안중근’이었다. 중국 계몽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량치차오의 문제의식을 잘 알 수 있는 〈朝鮮滅亡之原因〉의 한 대목을 살펴본다.

이번에 합병조약이 발표되자 이웃나라의 백성들은 오히려 조선을 위해 흐느껴 울며 눈물 흘렸는데, 조선 사람들은 술에 취해 놀며 만족했다. 고관들은 더구나 날마다 출세를 위한 운동을 하고, 새 조정의 영예스러운 작위를 얻기를 바라며 기꺼이 즐겼다. 무릇 조선 사람 천만 명 중에서 안중근 같은 사람이 또한 한 들쭉 없지는 않았다. 내가 어찌 감히 일률적으로 멸시하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사람은 본래 억만 명 중에서 하나 둘에 지나지 않으며, 설령 한두 사람이 있더라도 또한 사회에서 중시되지 않는다. 그저 중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한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다. …… 우리나라는 어떠한가?¹⁵⁾

단락 마지막 부분에서와 같이 문장 곳곳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이와 비슷한 것이 있지 않았던가?”¹⁶⁾라는 첨언을 부기함으로써, 중국인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계몽적 의도에 따라 안중근 등 조선에 대해 분석과 묘사를 했음을 드러냈다. 량치차오는 그러한 계몽주의 정치인이자 문학가의 입장이었으므로 그 경향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편파적이고 과장될 소지가 있었다. 또 그러한 상황에서도 안중근만큼은 보기 드물게 긍정적인 본보기 즉 정면교사로서의 가치가 있었다.

14) 같은 맥락의 중요한 문장으로 〈越南亡國史〉(1905.10)를 꼽을 수 있다. (『飲冰室專集』之十九)

15) “此次合併條約之發表，鄰國之民，猶爲之歎歔泣數行下，而朝鮮人酣嬉自得，其顯官且日日運動，冀得新朝榮爵，栩栩然樂也。夫以朝鮮一千萬人中，若安重根其人者，亦未始無一二，吾豈敢一律蔑視。雖然，此種人固億萬中不得一二，即有一二焉，而亦不見重於社會。匪有不見重，且不能自生存。……我國如何?” (『飲冰室專集』之二十，5면)

16) “我國如何?,” “我國曾有類此者否?”

3. 안중근 형상화의 양상 및 타인과의 대비

1) 영웅 또는 의협으로의 형상화

안중근은 1910년 3월 26일 세상을 떠나기 이전에,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직후부터 이미 중국에서 문학적 형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바로 량치차오의 〈秋風斷藤曲〉이 초기 작품이고, 이후 다른 중국인들의 작품들은 그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안중근을 제재로 한 중국 시문들에서는 우선 안중근에 대한 애도와 찬양이 가장 두드러져 보이지만, 음미할수록 안중근과 그 의거는 물론 조선 전반에 관한 중국인들의 감정과 인식이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하게 드러난다. 〈秋風斷藤曲〉이 그러했고, 이후 다른 중국인들의 많은 작품들에 비슷한 면모가 보인다.

〈秋風斷藤曲〉이 지어진 시기에 대한 량치차오 자신의 언급은 찾지 못했다. 다만 『梁啓超著述系年』¹⁷⁾에는, 량치차오가 37세이던 1909년(宣統元年) 12월 11일자 목록의 시가들 바로 다음 부분에 열거되어 있다. 즉 다른 저술들과는 달리 창작 또는 게재 일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셈이다.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지만,¹⁸⁾ 그 해 양력 10월 26일 이후부터 12월 중순 사이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편시는 ‘안중근’이 주요 제재이면서도 독특하게 시구 중에는 그 이름을 직접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제목에서부터 ‘가을바람’은 안중근을 비유하고, ‘등나무(藤)’는 이토 히로부미를 가리키며, 매서운 가을바람이 등나무를 꺾는 형상화가 강렬하다. 제국주의에 침략당하는 같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안중근에 대한 경탄과 통쾌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삼자이자 혁명가 입장에서, 메이지유신을 성공시킨 이토 히로부미의 속절없는 꺾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도 언뜻 내비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중의 상징적인 제목이다. 뿐만 아니라 시가 전반에 걸쳐 학자의 시답게 수많은 典故를 사용하여 안중근과 그 의거를 연상하게 했다.

96구는 매 2구가 1행으로 묶여 의미를 이어가는데, 1·2행에서부터 안중근이 이토를 총격한 하얼빈역사, 역로 위 흰 눈이 아직도 피에 붉게 물든 밤 광경을 상상하

17) 李國俊 편찬,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86.

18) 『飲冰室文集』之四十五下에는 〈詩十二題〉라는 큰 표제 하에 다른 시 11 수와 함께 실려 있다.

며 비장함을 돋운 후, 바로 안중근을 국가적 ‘영웅’으로 형상화했다.

가을 밤 불어오는 피리소리에 관산의 달¹⁹⁾이 기울고,
 역로의 푸른 등불은 흰 눈을 붉게 물들여 비춘다.
 대국은 선진의 수급을 슬퍼하고,
 망국의 유민은 위공의 피에 눈물 흘뿌린다.”
 秋茄吹落關山月，驛路青燈照紅雪。
 大國痛歸先軫元，遺民泣澗威公血。²⁰⁾

의거 이후 안중근의 의연한 태도를 춘추시대 쫓나라 장수 先軫(?-B.C.627)의 고사로 비유했다. 선진은 쫓과 楚의 城濮之戰에서 초군을 대파하고 쫓文公을 보좌하여 五霸의 하나가 되게 한 충신이다. 특히 B.C. 627년에 崤에서 秦軍을 격파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곧이어 狄人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 투구도 없이 적진으로 돌진하여 추호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다 전사했는데, 적이 돌려보낸 수급의 모습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이 용맹스러웠다는 역사 고사²¹⁾를 통해 안중근을 국가적 영웅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어서 威公²²⁾ 역시 忠義로 유명한 三國時代 蜀漢의 국가적 영웅으로 안중근을 상징한다. 더불어 조선 유민들이 지닌 망국의 한까지 표현했다.

1910년 한일병탄 직후 지은 <朝鮮哀詞>의 제 18수에서도 다음과 같이 안중근을 氣節이 쇠하지 않은 조선의 男兒로 일컬으며 그 순국을 애통해했다.

삼한의 수많은 인물 중에,
 내게는 두 남아만 보인다.
 위나라 위해 순국하며 간 거두고,²³⁾

19) 關山月은 橫吹曲辭에 속하는 樂府舊題이기도하다. 李白 및 陸游가 지은 <關山月>이 유명하다.

20) <秋風斷藤曲>, 『飲冰室文集』之四十五下, 37~38면. (이후 인용 같음)

21) 『左傳』·『僖三十三年』에 “투구를 벗고 적진에 들어갔다 죽었다. 狄人이 그 머리를 돌려보내니 얼 굴이 마치 살아있는 듯했다.” (免胄入敵師，死焉。狄人貴其元，面如生.)”라고 전한다.

22) 楊儀의 字로, 蜀漢 襄陽사람.

23) 『呂氏春秋』·『至忠篇』에 의하면, 춘추시대 衛나라 懿公은 鶴에 빠져 나랏일에 소홀했다. 결국 翟人과의 전투에서 살해되었는데 신체가 훼손되고 특히 간에 내팽겨졌다. 충신 弘演이 급히 달려가 통곡

진시황에게 철퇴 내리 친 기세 쇠하지 않았도다.²⁴⁾

三韓衆十兆, 吾見兩男兒.

殉衛肝應納, 椎秦氣不衰.²⁵⁾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안중근의 기개에 대해, 秦나라에 멸망한 조국 韓나라를 위해 결연히 복수를 시도하고 마침내 漢나라의 창업에 큰 공헌을 한 張良의 형상으로 비유하며 동정과 존경의 감정을 나타냈다. 아울러 안중근 외에 國恥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함으로써 忠義를 표출한 충청도 錦山 군수 洪範植도 두 男兒 중 하나로 찬양하며 춘추시기 衛나라의 충신 弘演에 비유했다.

이에 앞서 〈秋風斷藤曲〉의 38행에서도 이미 안중근을 장량에 비유한 바 있다.

내각에선 이미 무원형²⁶⁾을 잃었구나,

박랑²⁷⁾에서 처음으로 창해객에게 놀래더니만.

閣門已失武元衡, 博浪始驚倉海客.

박랑의 창해객이 진시황을 내리치려한 일로 세상을 놀라게 했듯이, 조선의 영웅은 이토를 쏘아 죽임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다는 의미이다. 다만, 내각은 일본의 내각, 무원형은 이토 히로부미를 가리키는데, ‘잃었다는 표현으로부터 자신이 갈망하던 중국 유신의 롤 모델이 스러져간 것에 대한 일말의 안타까움도 내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삼자인 량치차오의 미묘한 심정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위 〈朝鮮哀詞〉 제 18수의 내용과 이 〈秋風斷藤曲〉 38행의 내용을 함께 놓고 볼 때, 장량과 창랑역사 두 인물

하고 자신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그 간을 덮어주었다. 스스로 자결한 내용으로 볼 때 홍범식의 충절을 비유했다고 여겨진다. 참고로 홍범식(1871~1910)은 자 聖訪, 호 一阮이다. 1909년 錦山 군수로 전임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량치차오가 스스로 쓴 이 시의 해제에는 성명이 洪爽源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24) 張良은 滄浪力士를 시켜 博浪沙에서 秦始皇을 척살하고자 했다. 조국 韓나라를 멸망시킨 진시황에게 복수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일로 인해 장량은 숨어서 인고의 나날을 지내다가 후에 劉邦을 도와 漢나라의 중국 통일을 이루었다. 저격을 시도한 정황상 안중근 의거를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25) 〈朝鮮哀詞〉, 『飲冰室文集』之四十五下, 48~50면. (이후 인용 같음)

26) 唐 肅宗·德宗 시기의 공신으로, 御史中丞을 지내며 국가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27) 앞서 언급한 ‘博浪沙’를 가리킨다. 博浪은 옛 縣名으로, 오늘날의 河南省 陽武縣 황하 북쪽 하안에 해당하며 동남쪽에 ‘博浪沙’가 있다.

중 구체적으로 누구를 안중근에 비유하는지 모호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사건의 전체적인 주도자인 장량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창랑역사의 단순한 자객 형상이 아니라 장량의 국가적 영웅 형상을 활용했다.

33행에서는 시대적 책무를 자임하며 결연히 의거에 임하고, 나아가 추호도 살기를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든 안중근의 집안 배경에 대해 상징적으로 묘사했다.

시대의 책무를 모를까 뉘떡 자식인데,
 범문²⁸이 나라 위해 속히 죽기를 기도했던 것을 배웠구나.
 不識時務誰家子，乃學范文祈速死。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당시 조선 지배계층의 많은 인물들은 친일파인 一進會 등 봉당이나 만들어 서로 ‘배에 칼을 꽂으며’ 경쟁적으로 일본에 아침을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대조적으로 안중근만큼은 시세에 따르지 않고 국가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본보기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秋風斷藤曲〉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선을 둘러싼 정세를 상징화하여 묘사하는 가운데, 안중근에 대해 영웅적 형상으로 찬양하고 더불어 의협적 형상으로도 표현했다. 시의 도입 부분에서 의거 후 하얼빈 역의 비장한 밤 정경을 배경으로 삼고 주인공 안중근을 先軫과 楊儀의 형상으로 등장시킨 이후,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의거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가운데, 안중근의 비장하고 호방한 기개를 더욱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주로 33행 이후 여러 인물고사를 사용하여 안중근의 의협으로서의 형상을 집중적으로 묘사했다.

만리 끝까지 쫓아오니 예양교²⁹요,
 천금같이 깊이 감춰나니 사나이 비수로다.

28) 범문이라는 역사 인물은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16국 시기의 方士(?~318)로 道教의 초기 유파인 天師道 教主 중 한 사람이다. 다른 한 사람은 東晉 林邑國 사람(?~349)으로, 日南郡西卷縣 元帥 范稚의 노비였다가 임읍국 왕 范逸의 신뢰를 얻어 장군이 되었다. 범일이 죽자 왕이 되어 서남의 여러 소국을 공격해 병합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확실하지 않다.

29) 『戰國策』·『趙策』에 의하면, 지백의 가신 예양은 눈썹과 수염을 깎고 몸에 흙칠을 하여 문둥이처럼 꾸미고 재를 삼켜 병어리 행세까지 하며 다리 밑에 숨어 있다가 조양자를 척살하여 주군을 위해 복수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결했다. 이후 그 다리를 예양교라 부르게 되었다.

萬里窮追豫讓橋，千金深襲夫人匕。

피가 다섯 걸음이나 흘러넘치며 大事는 끝이 나고,
미친 듯 호탕한 웃음소리에 산 위엔 달이 높구나.
流血五步大事畢，狂笑一聲山月高。

위 첫 번째 구절은 34행으로, 戰國時代 쑤나라 의협 豫讓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보살펴준 大夫 智伯이 趙襄子에게 살해당하자 복수를 결심하고 다리에 매복해 있다 척살하려 했던 사건을 안중근 의거에 비유했다. 두 번째 구절은 36행으로, 역시 戰國時代 의협 唐雎의 고사를 사용했다. 秦나라가 魏나라의 安陵 땅을 탐내자 安陵君이 唐雎를 秦에 사신으로 파견했다. 당저는 당시 秦王의 위협에도 끝내 굴하지 않고, “만일 선비가 꼭 노하게 된다면 엮어진 시체가 돌이 되고, 피가 다섯 걸음이나 흘러 넘쳐 천하가 소복을 하게 됩니다.”³⁰⁾라고 하며 맞섰다. 당저의 용기와 논쟁에 깊은 인상을 받은 秦王은 안릉을 정복하려는 야심을 잠시 접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朝鮮哀詞〉에서 안중근을 氣節이 쇠하지 않은 조선의 男兒로 일컫은 것과 비슷한 詩情이 〈秋風斷藤曲〉 39·40행에도 보인다.

만인이 머리를 맞대고 형경³¹⁾을 우러러 보니,
조용히 범정의 문서 대함이 평시와 같구나.
남아는 죽어서 이에 도를 이루지만,
국치를 씻지 않는다면 명예는 이루어 무엇 하랴 한다.
萬人攢首看荊卿，從容對簿如平生。
男兒死耳安足道，國恥未雪名何成。

荊卿가 죽음을 예사로 여긴 형상으로 비유했다. 자객의 이미지로도 널리 알려진

30) “若士必怒，伏屍二人，流血五步，天下縞素。”(〈唐雎不辱使命〉, 『戰國策』·『魏策四』) 이후로 ‘流血五步’는 적국 수뇌를 척살함을 의미하게 되었다.

31) 戰國 末期의 荊軻를 높이 칭했다. 『史記』·『刺客列傳』에 의하면, 齊나라 출신으로 각국을 유람하다 衛나라를 거쳐 燕나라에 정착했다. 田光에 의해 태자 丹에게 천거되어 극진히 대우받았다. 燕나라를 지키고자 염원했던 太子 丹의 명을 받들어 秦王 嬴政을 암살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인물이나, 여기서는 의거 이후 진행된 공재재판에서 안중근이 평상시처럼 태연자약 하며 죽음을 명예로 받아들이는 의협·대장부의 모습을 그리는 데 쓰였다. 실제 량치차오는 1910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중국 旅順에서 진행된 안중근 재판을 참관한 바 있다.³²⁾ 자신의 실제 경험과 관심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량치차오는 안중근에 대해 의협으로 또는 영웅으로 경탄했지만, 언급했듯이 동시에 톨 모델 이토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제삼자로서의 이러한 시각은 시가를 총결하는 마지막 대목에 다시 잘 드러나 있다.

천추의 은원을 누가 능히 가릴 수 있으랴?
 두 현자 각기 태산만큼 중하도다.
 인생길에 안자³³⁾의 편달을 따르고 받들었지만,
 이웃에 묘혈을 만들어 요리³⁴⁾의 무덤으로 삼고자 한다.
 千秋恩怨誰能訟? 兩賢各有泰山重.
 塵路思承晏子鞭, 芳鄰擬穴要離冢.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주군의 政敵을 살해하고 자결한 春秋 말기 吳나라 의협 要離에 빗대어 안중근을 기리고, 동시에 務實力行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한 晏嬰으로 이토를 비유하며 안타까움도 표현했다. 시의 결말에서 중국인 량치차오는 안중근 의거이자 이토 사망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접하며 느낀 복합적 감정을 추스르고, 안중근과 이토를 함께 현자로 받들어 중국이 추구하는 애국·독립과 개혁·발전의 두 가지 지향으로 삼고자 했다.

위와 같이 량치차오는 수많은 典故를 사용하고 관련 인물들로서 안중근을 비유했다. 先軫·楊儀·張良·豫讓·荊軻·燕太子丹·要離 등이다. 이들은 평소 국민성개

32)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이태진이 일본 국회도서관 시치조 기요미(七條清美) 컬렉션 중에서 관련 사전을 발견하여 공개한 바 있다. 량치차오가 법정 방청석 첫줄에 앉아있는 것으로, 그의 지대한 관심을 증명한다. (『문화일보』, 2016.12.08.)

33) 晏嬰(?-B.C.500)을 말하며, 春秋時代 齊나라의 大夫로, 景公 때 재상으로서 큰 업적을 남겼다.

34) 『呂氏春秋』·『忠廉』편에 의하면, 요리는 주군인 吳王 闔閭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처자식과 자기 팔 한쪽까지 희생하고 마지막엔 자결까지 한 인물로 전해진다.

조론을 강조한 량치차오가 尙武精神을 비롯한 이상적 국민성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한 『中國之武士道』(1904)에서 중국적 무사도의 표상으로 제시한 73명의 인물들 중에 모두 포함된다.³⁵⁾ 그가 평소 수립하고자 한 忠·義·勇부터 희생정신에 이르는 중국적 士道·武士道³⁶⁾의 덕목들을 표상하는 대표적 인물들이다. 결국 량치차오에게 있어서 안중근은 비록 중국인은 아니지만 중국적 무사도의 표상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인물이었기 때문에 제재로 활용되었다. 정리하자면, 량치차오에게 있어서 안중근은 상무정신을 비롯한 애국심·독립의식·의무감 및 굳센 의지력 등 이상적인 국민성을 고취하고,³⁷⁾ 나아가 국가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덕목 및 리더십을 선양하기에 매우 적합한 형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지도층의 부정적 형상과의 대비

량치차오는 또한 시문 중에서 안중근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부정적인 형상의 조선인 인물들을 다수 묘사하여 문학적·계몽적 효과를 제고시켰다. 그는 조선의 멸망을 논의한 역사적 記述의 문장이나 政論文 중에서 무엇보다 亡國의 최대 원인을 宮廷이라고 단언하며 專制王政의 주권자인 高宗 황제와 大院君의 失政에 대해 극렬히 비판하고,³⁸⁾ 그 과정에서 개인적 품성에 대해 극단적으로 폄하했다. 조선이 멸망한 직후인 1910년 9월 발표한 <朝鮮滅亡之原因>에서, 고종에 대해 “한국 황제는 서열 출신이다.”³⁹⁾라는 언급으로 시작하여 의도적 비하의 느낌을 주고, 뒤이어 다음과 같이

35) 최형욱, 「량치차오의 『中國之武士道』 저술을 통한 이상적 국민성의 기획」, 『中國語文學論集』 제115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19. 306~313면 참고.

36) 량치차오가 『中國之武士道』를 통해 수립하고자 했던 武士道는 일본의 무사도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그 개념을 확대하여 軍士를 포함하는 국가사회의 리더인 士계층의 도덕적 표준 및 리더십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는 士道라고도 할 수 있다. (같은 논문, 313~317면 참고)

37) 량치차오의 국민성개조론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전 중국 국민성 중의 노예근성·우매함·극단적 이기주의·거짓 선호·나약함·不動 등 부정적 속성들을 제거하고, 애국심·독립의식(자치력)·공적 윤리도덕의식(公德·公同心)·진취성·모험심·자존의식·단합정신(合群)·굳센 의지력(毅力)·의무감·상무정신 등 이상적 속성들을 갖추자고 하는 것이다. (최형욱, 『梁啓超의 中國國民性論 및 朝鮮國民性 批判 探究』, 『외국학연구』 제24집,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3. 526면 참고)

38) 예를 들어 <朝鮮滅亡之原因>에서 “조선 망국의 최대 원인은 사실상 궁정이다. (朝鮮滅亡之最大原因, 實惟宮廷.)”라고 했다. (『飲冰室專集』之二十, 1면) 뿐만 아니라 무능한 국왕에 대해 대원군의 섭정과 명성황후의 정치 참여에서 비롯한 조정의 失政이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여 멸망으로 향했다고 비판했다.

39) “韓皇系出庶孽.” (같은 책, 2면)

묘사했다.

만일 한황이 평범한 군주의 자질이라도 있었다면 그 위세에 의지해 장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황의 사람됨은 두려움이 많고 나약하여 스스로 떨쳐 일어나지 못하고, 의심이 많고 결단성이 부족하여 참언을 듣기 좋아하고 사리판단에 어두우며, 총애하는 궁녀가 많고 도적놈들이나 가까이 하며, 잔피를 부리고 계획은 늘 치졸하며, 타인에게 의지하여 자립하지 못하며, 허식을 좋아하고 내실에 힘쓰지 않았다.⁴⁰⁾

정론문이라기 보다는 주로 소설에 보이는 인물 묘사로서, 일국의 군주인 고종의 형상을 더할 나위 없이 부정적으로 표현했다. 이어서 더욱 심각한 묘사들이 많다. 증간은 생략하고 마지막 대목만 인용한다.

강한 이웃이 국경을 압박하여 명운이 조석에 달렸건만 여색 밝히고 사냥이나 하러 다녔다는데, 즐였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齊나라 東昏이 근심 없는 천자 노릇 했던 것과 같았다. 대략 역대 망국 군주의 악덕을 한황은 거의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대수롭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견이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길 좋아하고, 권위만 믿고 책임지길 꺼려하며, 시샘이 많아서 현인을 기용하여 자신을 보필케 하지 않았던 점, 이것만은 고칠 수 없는 중병이었다. 비록 명의 和와 扁鵲이라 하더라도 치료할 수 없었다.⁴¹⁾

고종의 성품이나 특징에 대해 중국 역대 왕조 중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군주들의 열악한 덕목들에 다양하고도 상세하게 비유했다.

또한 량치차오는 황실 내부에서 벌어진 심각한 갈등과 국정 혼란의 총체적 근원

40) “使韓皇果有中主之資，憑藉其勢位，未嘗不可以弭禍於方來。然而韓皇之爲人也，慈懦而不自振，多疑而寡斷，好聽讒言而暗於事理，多內嬖而昵宵小，喜行小慧而計常拙，依賴他人而不自立，好爲虛飾而不務實。”(같은 면)

41) “強鄰壓境，命在旦夕，而色荒禽荒，不聞少減，則齊東昏之作無愁天子也。蓋歷代亡國之君之惡德，韓皇殆悉備之。然其他皆可云小節，獨其無定見而好反覆，怙威權而憚負責任，多猜忌而不能舉賢自佐，此則膏肓之病，雖和扁不能以爲治。”(같은 책, 3면)

으로서 대원군을 비판하고, 그 인물됨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日本併呑朝鮮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폄하했다.

그 사람됨은 술수와 모략 꾸미길 좋아하나 대체를 알지 못하며, 일 만들기를 좋아하나 일정한 계획이 없으며, 성질이 잔혹하고 교만하나 속마음은 유약하고 시기가 많으니, 실로 조선 민족성질의 대표이며 멸망의 장본인이다.⁴²⁾

라고 규정했다. <朝鮮滅亡之原因>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했다.

대원군이라는 자는 천성이 각박한 사람이다. 그 음험하고 사나운 성질은 온 조선의 조정을 나아지지 못하게 했다. 교만하고 흐리멍덩하면서도 조급하고 시샘이 많으니 주권자의 그릇이 못된다. …… 백성들에게 가렴주구한 바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른바 結頭錢·願納錢 등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남김없이 잔혹하게 착취했다. 秦나라의 阿房宮, 隋나라의 迷樓라 하더라도 그 사치를 비유하기에 부족하다. 民力이 병들게 된 것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 대원군의 사람됨이 비록 직무를 맡는데 과감하고, 맺고 끊음이 있어 한황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전혀 아니었지만, 한국을 망하게 한 장본인을 논한다면, 그가 실로 이에 해당한다.⁴³⁾

위와 같은 인식에는 기본적으로 량치차오의 자기 편의적인 중화제국주의 사유가 내재한 것으로 여겨진다. 서구 및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여러 문장들에서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는데 자의든 타의든 그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여기고 노골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표출했다. <日本併呑朝鮮記>에서 “조선 왕 역시 함부로 황제의 칭호를 도용하며 잠시 스스로를 위로했다.”⁴⁴⁾라며 대한제국의 선포와 고종의 칭제를 ‘도용’했다고 조롱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 차례 고종의 자질

42) “其爲人也，好弄術智而不知大體，喜生事而無一定之計畫，性殘酷橋慢而內佞多猜。實朝鮮民族性質之代表，而亂亡之張本人也。”(『飲冰室專集』之二十一，3면)

43) “大院君者，固天性刻薄人也。其陰鷲之才，舉韓廷無出其右。惟驕汰而卞急多猜忌，無君人之器。……其所以苛斂於民者，非言語所能殫述。至有所謂結頭錢願納錢者，名目百出，竭澤以漁。秦之阿房，隨之迷樓，不足以喻其汰也。……大院君之爲人，雖敢於任事有斷制，遠非韓皇所能逮，而亡韓之禍首，彼實尸之矣。”(『飲冰室專集』之二十，2면)

44) “朝鮮王亦妄竊帝號，聊以自娛矣。”(『飲冰室專集』之二十一，8면)

과 무능을 암시적으로 묘사했다. 같은 <日本併呑朝鮮記>에서 “왕은 왕비 및 태자의 소제를 잃고 울면서 가려 하지 않았다.”, “이노우에는 政策 24조를 올리고 한국 왕을 알현했는데, 말소리와 표정이 모두 매서웠다. 한국 왕은 몹시 두려워했다.”⁴⁵⁾라고 하거나, <嗚呼韓國嗚呼韓皇嗚呼韓民>에서는 직접적으로 “기지는 조금 있으나 독단으로 처리하기를 좋아하고 정해진 의견이 없으며, 오직 그럭저럭 버티는 데만 힘쓰며 사람들의 이목을 막으려고만 했다. …… 한국에 이러한 황제가 있음으로써 한국은 마침내 망했다.”⁴⁶⁾라고 묘사하는 식이었다. <朝鮮哀詞> 제 7수의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기이한 복이 까닭 없이 골러들어왔네,
 하늘이 수명부를 내려야하건만.
 야랑⁴⁷⁾이 스스로를 크게 여겼듯이,
 황제의 칭호에 이같이 즐거워하네.
 奇福無端至, 天貽受命符.
 夜郎能自大, 帝號若爲娛.

서운함을 넘어 조소의 심사가 짙게 깔려 있다. 세상이 큰 줄도 모르고 중국의 허락 없이 스스로 황제라고 부르며 우쭐대는 ‘夜郎自大’식 과대망상에 사로잡혔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깊고 넘어가야 할 점은 량치차오가 조선을 방문한 적도 없고, 고종과 대원군을 만나본 적도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인물됨을 오래 겪어본 것처럼 묘사한 것은, 그가 1898년 일본에 망명한 후 학술 및 언론·출판 업무에 종사하면서 접하게 된 일본인들의 자의적이고 왜곡된 조선 인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

45) “王以失妃及太子所在, 涕泣不肯行.”, “井上上政策二十四條, 謁見韓王, 聲色俱厲. 韓王震懼.” (같은 책, 6·8면)

46) “小有機智, 好專斷而無定見, 專務敷衍以塗人耳目. …… 韓有此皇, 而韓遂以亡.” (夏曉虹輯, 『飲冰室合集集外文』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517면)

47) 漢代 서남방 지역, 오늘날의 貴州省 서북부 및 雲南省·四川省에 걸쳐 있던 옛 소수민족 국가. 『史記·西南夷列傳』에 의하면, 夜郎侯 多同은 秦이 망한 후 길이 잘 통하지 않아 漢의 세력이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漢보다 크다고 여겼다고 한다. 이후 ‘夜郎自大’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사람 또는 용렬한 무리 가운데서 세력이 있어 잘난 체하고 뽐냄을 비유하게 되었다.

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주지하듯이 일본인들은 조선에 대한 침탈 야욕을 합리화하기 위해 에도시대(1603~1682) 이래로 조선·조선인에 대해 왜곡해왔고, 이는 메이지시대(1868~1912)에 특히 활발했다. 제삼자이자 일본의 개혁을 두루 학습하고자 했던 량치차오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언론·출판 및 학계에 존재했던 목적의식적인 조선·조선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 자료들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⁴⁸⁾ 게다가 조선이 ‘中華’의 영향권에서 이탈하여 소위 ‘稱帝’까지 한 데 대한 ‘불유쾌한’ 감정이 더해져 문학적 과장을 만들어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조선의 상황을 중국 계몽의 반면교사로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강렬했기 때문에 그만큼 과장도 강화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량치차오는 비판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선의 지배계층이 개인만 알뿐 국가의식이 라곤 전혀 없고 심지어 아예 정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성이 열악했기 때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예를 들어 〈秋風斷藤曲〉 13행에서는 “아! 箕子帝⁴⁹⁾ 측근들은 통치 능력이 비천하면서도 근심하지 않으니 마치 귀까지 짝 막히도록 차려 입은 듯하구나.”⁵⁰⁾라고 하여 조선 황실 및 지배계층이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등 진정한 정치를 행하지 않았음을 비유했다.

량치차오는 명성황후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친러 성향의 명성황후에 대해 반감을 가졌던 일본의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무튼 언급한 바와 같이 고종 황제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사직을 주관하기에 부족했고, “그래서 민비가 제멋대로 정사에 임했다. 아름다운 부인이 부추겨 처리하니, 온 나라가 임금의妃가 있음은 알되 임금이 있음은 모르는 것이 거의 20년이 나 되었다. 썩나라 惠帝가 賈后에게 속박되었던 것과 같다.”⁵¹⁾라고 주장했다. 관련하

48) 조선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언급한 자료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다만 량치차오가 조선의 역사 및 국민성에 대해 논의한 내용과 일본인들의 논의를 비교해보면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관련 내용은 최혜주, 『메이지 시대의 한일관계 인식과 일선동조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7집(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참고.

49) 량치차오는 箕子朝鮮說을 기정사실화 하는 가운데 통치자인 고종·대원군을 기차제로 표현했다.

50) “嗚呼箕子帝左右，聽庫不恤充如癩。” 여기서 ‘充如癩’는 『詩經』·『鄘風』의 〈旃丘〉에 나오는 “귀족 대신들이여, 잘 차려 입은 것이 마치 귀까지 짝 막고 있는 것 같구나. (叔兮伯兮，癩如充耳.)”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馬持盈, 『詩經今註今譯』(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5) 63면 참고)

여 〈朝鮮哀詞〉 제 9수에서는 그로 인한 외척들의 발호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썩은 양⁵²⁾ 때문에 명기가 천대 받고,
 학을 사신 삼으니 국방이 허술하구나.⁵³⁾
 爛羊名器賤, 使鶴國防單.

능력도 없이 관직을 차지하고 권력 다툼을 벌이는 외척들로 인해 내적으로는 부패가 극심해지고 외적으로는 인재를 제대로 기용하지 못해 국방을 도모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국가는 위태로워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음을 표현했다.

나이가 랑치차오는 조선의 兩班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층이 봉당이나 만들어 당쟁을 일삼으며 극한 대립을 반복함으로써 나라를 멸망의 나락으로 몰아갔다고 보았다. 조선 내부의 알력과 관련해서는 특히 여러 문장들에서 지배계층에 一進會와 같은 친일파가 형성된 것이 나라를 망하게 한 최대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⁵⁴⁾ 중국에도 친 외세 집단이 발호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朝鮮哀詞〉 제 19수에서도 일진회에 대해 가련한 벌레 같은 매국노라고 비유한 바 있다.

매국은 원래 값없는 일임에도,
 이름을 적고 공로를 기록까지 하는구나.
 얻어진 등지에서 어찌 알을 얻으리?
 아! 이 가련한 벌레들아.
 賣國原無價, 書名更策功.
 覆巢安得卵, 嗟爾可憐蟲.

랑치차오의 조선인·조선국민성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이와 같이 군주를 포함한

51) “放閔妃擅政, 豔妻煽處, 舉國中知有君之妃而不知有君者殆二十年, 則晉惠帝之受制於賈后也。”(『朝鮮滅亡之原因』, 『飲冰室專集』之二十, 2면)

52) 『後漢書』·『劉玄傳』에 나오는 표현으로, 지위가 낮은 자가 분에 넘치게 官爵을 받는 일을 비유한다.

53) 『左傳』·『閔公二年』에 나오는 이야기로, 衛懿公이 지나치게 학을 사랑했던 데서 유래하며, 통치자가 인재를 중시하지 않아 각 분야에 합당한 인제가 중용되지 못함을 비유한다.

54) 〈日本併呑朝鮮記〉에서, “일진회의 성립은 한국을 망하게 한 일대 사건이라고 해도 안 될 것이 없다. (一進會之成立, 雖謂爲亡韓之一大事, 無不可也.)”라고 했다. (『飲冰室專集』之二十一, 12면)

지배계층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대해서까지 비판적 경향이 강했다. 그 과정에서는 기왕에 망국사학의 계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주 서운함이나 조소가 가미된 문학적 과장을 더했다.

량치차오는 스스로 이 시의 해제도 썼는데, 제 19수 부분에서 일진회는 정당의 이름을 빌어 관직을 탐내는 무리이고 宋秉畷과 李容九가 주요 인물이며, 李完用 일파와 갈등 관계 속에서 경쟁적으로 일본에 아첨했다고 비판했다.⁵⁵⁾ <日本併呑朝鮮記>에서도 사실상 일진회가 일본을 도와 조선을 멸망시켰다고 단언하고, 송병준이 특히 주동인테 사람됨이 음흉하고 악랄한 재주를 지니고 있었으며 기회를 틈타는 데 교묘했다고 묘사했다. 일본이 합병의 공을 포상한다면 송병준과 이용구가 이토 히로부미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고 조롱하기도 했다.⁵⁶⁾ 물론 이완용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이 통감을 설치하자 이완용이 곧바로 이토에게 잘 보였는데, 데라우치가 들어오면서는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친척이 물러나있기를 권고했지만, “우리 집안은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은 지 오래되었다. 이제 매국의 이름을 피하려고 하는 게 더구나 어찌 가능하겠는가? 일본의 덕을 입으면 그래도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다. 자리를 잃느니 앉아서 고기 밥상을 받겠다.”⁵⁷⁾라고 하며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秋風斷藤曲> 31·32행에서도 조선에 이미 옥일기가 휘날리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백성들은 무사태평하고, 양반들은 봉당을 만들어 당쟁을 벌이며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더구나 지배계층은 경쟁적으로 친일에 몰두했음을 빗대었다.

십만의 성에 일본의 旭日旗 나부끼는데,

태평시절에 심취해 있음이 너무도 가련하구나.

채나라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춤을 추며 배도를 맞이하고,⁵⁸⁾

55) 『飲冰室文集』之四十五下, 50면 참고.

56) 『飲冰室專集』之二十一, 12·16면 참고.

57) “吾府怨於民久矣。今欲避賣國之名，更安可得。託庇日本，猶可苟全，與失職而坐受襦炙也。”(〈日本併呑朝鮮記〉, 같은 책, 6면)

58) 蔡나라는 周武王의 동생 叔度의 封地로, 楚나라의 압박에 밀려 上蔡·新蔡를 거쳐 下蔡로 바뀌었고, 결국 초나라에 의해 멸망했다. 여기서는 조선을 비유한다. 裴度は 唐 憲宗 시기의 재상으로, 몇 차례의 난리를 잘 평정하여 晉國公에 봉해졌다. 敬宗 시기에 이르러 宦官 劉克明이 시해하자 배도가 그를 죽이고 文宗을 옹립하여 30년간 권세를 누리며 스스로를 郭子儀에 비유했다. 여기서는 조선 내부에

완마들은 치달리며 이사 장군을 업신여긴다.⁵⁹⁾

十萬城中旭日旗，最憐深醉太平時。

蔡人呼舞迎裴度，宛馬駢馳狎貳師。

나라는 멸망으로 치닫는데 백성들은 제국주의 조류에 무지하고 태평하며, 권력층에서는 알력이 그치지 않음을 묘사했다. 관련하여 량치차오는 이러한 현상이 조선인의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타적인 국민성에 기인하며, 일본은 이를 확인한 후 침략의 도를 더욱 굳혔다고 주장한 바 있다.⁶⁰⁾ 위 32행에 뒤이어 33행부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의 열악한 국민성과는 다르게, 또 시류에 따르지 않고 결연히 자신을 희생한 대장부 안중근이 나왔음을 잇달아 노래함으로써 대비효과를 선명하게 했다.

종합적으로 보아, 량치차오의 조선 사회 지도층에 대한 인식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인 부분이 바로 안중근에 관한 묘사이다.⁶¹⁾ 아울러 량치차오는 士道 즉 국가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덕목과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당시 조선의 황실 및 지배계층 인사들을 안중근과 완전히 상반되는 부정적인 형상으로 묘사함으로써 정면교사-반면교사의 극명한 대비효과도 보였다.

4. 결론

한말 개화와 지식인들의 중요한 롤 모델이었던 중국 지도자 량치차오는, 한편으론 서구 및 일본 국가주의·제국주의의 속성을 꿰뚫어보고 그 폭압에 분노했지만, 다른

여러 차례 당쟁이 일어났음을 비유한다.

59) 宛馬는 고대 서역의 大宛 지역에서 생산되던 말로, 후에는 북방에서 생산되는 좋은 말을 널리 일컬었다. 여기서는 일본 침략군을 가리킨다. 貳師는 漢나라 장군 李廣利 즉 武帝의 李夫人의 오빠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조선 통치계층의 핵심인물들을 비유한다.

60) <朝鮮哀詞> 第19首 解題 (『飲冰室文集』 之四十五下, 50면) 참고.

61) 안중근 외에 간략하나마 다른 긍정적인 인물 묘사가 있기는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중근과 함께 금산 군수 홍범석을 찬양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한때 일본당으로 지목되었으나 이토에게 증시된 바도 있었으나,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인한 고종의 양위와 관련하여 끝까지 반대하며 충심을 보인 朴泳孝(1861~1939)를 높이 사기도 했다. (<日本併吞朝鮮記>, 『飲冰室專集』 之二十一, 14면 참고) 다만 문장이 1910년에 지어진 관계로 이후 박영효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었다. 이밖에 량치차오의 문장 가운데 특별한 평가 없이 단순히 거명된 조선의 인물들도 수십 명에 이른다.

한편으론 그것을 동경하기도 하고 여전히 역시 제국주의인 중화주의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한 중국인 량치차오에게 있어서 조선은 상실되어가는 자신의 일부이자 동시에 서구 및 일본과의 대비 속에서 중국 자신을 비취볼 수 있는 타자이기도 했다. 이에 중국의 운명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고민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 특별한 타자의 멸망을 바라보며 동정·서운함·조소·염려 등 복잡한 감정과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한 감정과 인식은 1904년부터 1911년까지 일본이 조선에 대한 강점을 본격 화하고 완성한 시기의 두 편의 장편 시가와 여러 편의 문장 가운데 담겨있다. 작품들 속에서는 먼저 조선의 망국 문제에 대해 다양하게 詩情을 펼치거나 논의를 풀어나가는 가운데 자주 ‘안중근’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도 했고, 반대로 처음부터 ‘안중근’을 제재 삼아 시가를 읊는 가운데 조선의 망국 문제로 주제를 확대시켜 나가기도 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계몽을 취지로 했다.

량치차오가 ‘안중근’을 제재로 지은 시가는 장편 史詩로 일컬을만한 〈秋風斷藤曲〉과 〈朝鮮哀詞〉중 일부이다. 본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창작 동기 및 내용은 첫째, 안중근 의거에 감동을 느껴 국가를 위한 영웅적 행위와 의협으로서의 인물됨을 찬양하는 것이고, 둘째, 나아가 그 이미지를 국민성개조를 비롯한 중국의 계몽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朝鮮亡國史略〉·〈日本併吞朝鮮記〉·〈朝鮮滅亡之原因〉 등 문장들 중에서도 망국사학 또는 망국정론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주제의식 속에서 조선의 멸망에 대해 배경·원인·과정·교훈 등을 논의하며 자주 안중근을 제기하고 묘사했다. 그 궁극적 목적은 역시 중국을 위한 각성과 계몽이었다.

량치차오는 이 과정에서 방대한 학식을 과시하며 수많은 典故를 사용하고, 先軫·楊儀·張良·豫讓·荊軻·燕太子丹·要離 등 관련 인물들로써 안중근을 비유했다. 량치차오가 평소 수렵하고자 한 忠·義·勇부터 희생정신에 이르는 중국적 士道·武士道の 덕목들을 표상하는 대표적 인물들이다. 국가를 위해 투구도 없이 적진으로 돌진하여 추호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다 전사했지만, 적이 돌려보낸 수급의 용맹스런 모습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았다는 先軫의 고사와 안중근이 일본군들 속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후 보인 결연한 태도는 매우 자연스럽게 부합한다. 또 량치차오 본인도 방청한 바 있지만, 공개재판에서 안중근이 태연자약하며 죽음을 명예로 받아들이는 의협·대장부의 이미지는 秦王 嬴政을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죽

입을 당한 荊軻의 형상과 역시 잘 부합한다.

결국 량치차오에게 있어서 안중근은 국가 지도층 리더십의 표상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인물이었기 때문에 제재로 활용된 것이다. 나아가 평소 그가 국민성개론에서 이상적인 국민성으로 강조한 상무정신·애국심·독립심·의지력·의무감 등을 고취하기에 매우 적합한 본보기가 안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량치차오는 지도층의 도덕적 덕목과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당시 조선의 황실 및 지배계층 인사들을 안중근과 완전히 상반되는 부정적인 형상으로 묘사함으로써 정면교사-반면교사의 극명한 대비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량치차오의 인식의 근간에는 조선을 속국으로 여기는 중화제국주의의 모순이나 일본에 의해 왜곡된 조선관 등도 암암리에 작용했고, 그렇게 후대 중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량치차오 인식의 한계로 비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더욱 심층적·논리적으로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어쨌든 안중근을 비롯한 윤봉길·이봉창 등 항일애국지사들은 비록 한국인이지만, 중국인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기억과 정서 그리고 사유가치가 있는 역사 인물이다. 때문에 순국 무렵부터 이미 많은 문학과 예술의 중요한 제재가 되었다.⁶²⁾ 또 앞으로도 그들의 입장에서 재평가되고 작품화될 수 있다. 여러 이유로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국주의의 침탈로 인해 한국과 비슷하게 수모를 당했던 중국인들의 시가와 정서 속에서 한국의 어떤 인물이 어떻게 작품으로 승화되었는지 그 자료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미 있는 연구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우선 하얼빈 의거 이후 중국에서 안중근에 대해 다양한 작가들이 다양한 형식의 문학작품을 지어내고 글쓰기를 한 것들에 대해 차례로 수집·정리·분석해보고자 한다. 문학 면에서는 물론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투고일 20.07.09

심사완료일 20.08.10

게재확정일 20.08.19

62) 량치차오의 시문은 당시 중국에 체류 중이던 조선 문인들의 작품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박은식·김택영 등 조선 문인들의 안중근 관련 전기문이나 한시의 경우, 본고에서 논의한 량치차오 시문 중의 묘사와 비슷한 면모가 보이는 가운데 조선 문인들 간 각기 대비되는 특징도 있어 흥미를 끈다. 다음 지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황재문, 『안중근의 문학적 형상과 양상 연구』, 『국문학연구』 제15호(국문학회, 2007) 참조.

■ 참고문헌

- 梁啓超, 『飲冰室全集』, 上海: 上海中華書局, 1916.
- 梁啓超, 『飲冰室合集』, 北京: 北京中華書局, 1936.
- 梁啓超著, 舒蕪校點, 『飲冰室詩話』, 北京: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82.
- 梁啓超著, 夏曉虹輯, 『飲冰室合集集外文』,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李國俊, 『梁啓超著述繫年』,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86.
- 汪松濤, 『梁啓超詩詞全注』,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1998.
- 최형욱編譯, 『량치차오,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 파주: 글항아리, 2014.
- 김병민, 『梁啓超와 그의 <朝鮮哀詞> 5律 24首』, 『민족문학사연구』 16, 민족문학사연구소, 2000.
- 양귀숙외, 『梁啓超 詩文에 나타난 朝鮮問題 인식』, 『中國人文科學』 제26집, 중국인문학회, 2003.
- 최형욱, 『조선의 梁啓超 수용과 梁啓超의 조선에 대한 인식』, 『韓國學論集』 제45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 _____, 『梁啓超의 <秋風斷藤曲> 탐구』, 『동아시아문화연구』 제49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 _____, 『梁啓超의 <朝鮮哀詞五律二十四首> 探究』, 『한국언어문화』 제49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 _____, 『梁啓超의 中國國民性論 및 朝鮮國民性 批判 探究』, 『외국학연구』 제24집,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3.
- _____, 『량치차오의 <日本併呑朝鮮記> 연구』, 『중국문화연구』 제28집, 중국문화연구학회, 2015.
- _____, 『량치차오의 『中國之武士道』 저술을 통한 이상적 국민성의 기획』, 『中國語文學論集』 제115호, 중국문화연구학회, 2019.
- 최혜주, 『메이지 시대의 한일관계 인식과 일선동조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7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 황재문, 『안중근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 연구』, 『국문학연구』 제15호, 국문학회, 2007.

A Study on the Imagery of Ahn Jung-Geun in Liang Qi-Chao's Poetry and Prose

Choi, Hyeong-wook*

Ahn Jung-Geun's patriotic act was not only a paramount event in the history of East Asia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but also a motif of literature and art in both countries.

Liang Qi-Chao was a leader who began to create poems and essays related to Ahn in China. He expressed anger over the tyranny of nationalism and imperialism of the West and Japan, but on the other hand, he still expressed conflicting beliefs that were bound to traditional Sinocentrism. As a Chinese leader, to Liang Qi-Chao, Joseon was a lost part of himself and at the same time the other who could reflect on himself. As a leader agonizing over where and how to lead China's fate, he witnessed the devastation of this particular entity and expressed complex emotions and perceptions, including sympathy, sadness, ridicule and concern.

These feelings and perceptions are contained in two poems and essays written by Liang from 1904 to 1911. Ahn Jung-Geun was either raised to discuss the issue of the Joseon Dynasty or used as a topic from the beginning; ultimately, both cases targeted Chinese enlightenment.

The poems of Liang Qi-Chao, created under the theme of 'Ahn Jung-Geun', are <秋風斷藤曲> and part of <朝鮮哀詞>. The motivation of the poems is to praise Ahn's heroic deeds and to actively utilize his image in Chinese enlightenment, including the reform of national character. Also, among other essays such as <朝鮮亡國史略> · <日本併吞朝鮮記> · <朝鮮滅亡之原因>, Ahn's depiction ultimately

* Professor, Dept.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Hanyang University

served as a point of awakening and enlightenment for China.

Moreover, Ahn was a very suitable person to promote the martial spirit, which Liang emphasized as one of the most ideal aspects of the theory of national character reform. In addition, Liang Qi-Chao portrayed Joseon's royal family and ruling class figures in a negative manner that was completely at odds with Ahn's perspective. Through this, he maximized the degree of enlightenment.

Keywords : Liang Qi-Chao, Ahn Jung-Geun, Ito Hirobumi, Imagery, National Hero, Chivalrous fighter